

3년차 주장 안영규 “올해도 ‘감동 축구’ 기대하세요”

광주FC 주장단 선출...부주장에 이민기·이희균 선수 “첫 출전 ACL 잘하고 싶어...살림꾼 역할 최선을 다할 것”

“안 시켜주면 1년 더 하려고 했다”며 3년 연속 주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안영규가 활짝 웃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동계 전지훈련 중인 광주FC가 2024시즌 선수단을 이끌고 갈 주장단을 선임했다. 친정 광주로 복귀한 2022시즌, ‘이정호호’ 초대 주장을 맡았던 안영규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주장 완장을 찬다.

이민기와 이희균은 부주장에 선임된 안영규와 함께 2024시즌 우승 도전에 나선다.

프로 13년 차인 안영규는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수단과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위기관리 능력도 보여주며 이정호 감독은 물론 선수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광주 금호고 출신으로 수원과 대전 등을 거쳐 2015년 고향팀 광주로 이적한 그는 2022년 다시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사령탑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이정호 감독을 보필해 2022년 K리그2 우승 팀 주장이 된 안영규는 이 해 리그 MVP도 거머쥐었다.

1부리그로 승격한 지난 시즌에는 팀 최고 순위인 3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엘리트 진출을 이끌었다.

“주장 3년 차” 안영규는 설렘으로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안영규는 “주장을 더 하고 싶었다. ACL 처음 나

가는데 거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하는 것은 나한테도 처음이고,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더 하고 싶었다”며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주장단을 하면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가 없을 때도 부주장이 민기와 희균이가 잘 해줘야 한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선수들도 우리를 보고 좋은 생각을 할 것이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올 시즌도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주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원클럽맨” 이민기도 처음 주장단으로 선수단 전면에서 나선다.

2016년 입단한 이민기는 올해로 광주에서 8번째 시즌을 맞게 되며, 통산 164경기에 나와 4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매 시즌 25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이민기는 꾸준한 경기력으로 광주의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중비전 ‘부주장’이다.

이민기는 “처음으로 주장단을 맡게 됐다. 올 시즌 우승할 팀의 부주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다”며 “주장인 영규 형이 워낙 만능 같은 느낌이고, 믿음직스럽다. 영규형 잘 보필해서 부주장으로서는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처음 부주장을 할 것이라는 언질을 들었을 때



광주FC 2024시즌 주장단에 선임된 부주장 이민기(왼쪽부터) 주장 안영규 부주장 이희균이 태국 치앙마이 로얄호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부담감도 있었는데 희균이가 부주장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졌다. 어린 선수들 중간 선수들 관리를 해야 하는데 희균이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담이 줄었다. 어린 선수와 고참 선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희균이에게 잘 전달하면서 팀을 이끌겠다”고 이야기했다.

2019년 광주에 입단한 ‘유스 출신’ 이희균은 왕성한 활동량과 헌신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

다. 입단 후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고전도 했지만 지난 시즌 34경기를 소화하면서 구단 최초 ‘유스 출신 원클럽맨 리그 100경기’라는 새 기록을 만들어냈다.

“예상했듯이 부주장이 됐다”며 웃음을 터트린 이희균은 “더 열심히 하겠다. 감독님께서 조금 더 성숙해지라는 의미로 역할을 맡으신 것 같다. 경기장에서 공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장비도 정리하

고 그런 역할도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주장인 영규형이 아프거나 그래서 자리에 없을 때 보면 티가 난다. 경기장 안에서 그렇고 팀의 분위기를 정리하고 중심을 잡아준다. 어려운 자리지만 영규형 잘 도우면서 하겠다. 개인적으로도 올 시즌 10번을 달고 뛰게 됐는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태국 치앙마이=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4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쇼트트랙 혼성 계주 결승 B 경기에서 대한민국 주재희가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3대3 아이스하키, 중국 꺾고 결승 진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아이스하키 사상 첫 메달 확보

한국 여자 3대3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해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확보했다.

한국은 24일 강원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 2024) 여자 3대3 아이스하키 준결승에서 중국에 6-4(3-3, 2-0, 1-1)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모든 올림픽을

통틀어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성인 올림픽에서 메달권과 거리가 멀었고, 청소년올림픽엔 여러 나라 선수가 섞인 다국적 팀에 선수를 파견해왔다.

한국은 국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서게 됐다.

한국은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최강 헝가리와 금메달을 놓고 겨룬다.

헝가리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다. 한국은 예선에서 헝가리에 0-16으로 완패한 바 있다.

이날 대표팀은 중국을 맞아 짜릿한 역전승을 거

뒀다. 한국은 1파리어드 초반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0-2로 끌려갔지만, 한유안의 득점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한국은 다시 한 골을 내졌고, 1파리어드 종료 직전 장경원과 심서희의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대표팀은 2파리어드에서 주 공격수 한유안을 앞세워 역전에 성공했고, 3파리어드에서 리드를 지키며 결승 티켓을 따냈다. 3대3 아이스하키는 청소년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팀당 골리를 포함해 4명의 선수가 승부를 펼친다.

한 팀에 참가하는 인원은 13명이고 주기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체력을 안배한다. /연합뉴스

신진서 vs 변상일...바둑 랭킹 1·2위 LG배 격돌

한국이 주최하는 세계 기전인 LG배에서 우승컵을 놓고 4년 만에 ‘형제 대결’이 펼쳐진다.

부동의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23) 9단과 2위 변상일(27) 9단은 29일부터 제28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를 벌인다.

29일 1국에 이어 2국은 31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월 1일 최종 3국에서 우승자를 가린다.

24회와 26회 대회에 통산 세 번째 LG배 정상에 도전하는 신진서는 이번 대회 16강부터 중국의 강자인 리쉬안하오 9단과 구쯔하오 9단, 커제 9단을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신진서에게 맞서는 변상일은 이번 대회 16강에서 일본의 위정지 9단을 꺾은 뒤 8강과 4강에서 중국의 왕상하오·미위팅 9단을 꺾었다. LG배 결승에서 ‘형제 대결’이

벌어지는 것은 신진서가 박정환을 2-0으로 꺾은 2020년 제24회 대회에 이어 4년 만이다.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크게 앞선다. 신진서는 변상일에게 통산 35승 7패로 압도하고 있다.

그동안 7번의 결승 맞대결에서도 신진서가 6번 우승하는 등 ‘전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동안 LG배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12회 우승했고 일본이 2회, 대만이 1회 정상에 올랐다.

LG배 우승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LPGA 데뷔 임진희 “신인상 욕심 내 보겠다”

내일 드라이브 챔피언십 출전

오는 26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하는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다승왕 임진희(사진)가 신인왕과 시즌 1승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진희는 26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의 브레이든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드라이브 챔피언십(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다승 1위(4승), 상급랭킹 2위, 대상 포인트 2위에 오른 임진희는 LPGA 투어 웰리파인시리즈 공동 17위로 올해 LPGA 투어 출전권을 땀다.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은 임진희가 LPGA 투어 회원 신분으로 출전하는 첫 대회다.

임진희는 안강건설 골프단 운영 대행사 넥스트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보낸 데뷔전을 앞둔 소감에서 “(한국에서는) 신인상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더 욕심이 난다”고 의욕을 보였다.

다만 임진희는 “땀대로 되지 않는 게 골프이고, 목표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 골프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랭킹 1위라고 밝혔던 임진희는 “세계랭킹 1위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



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진희는 데뷔전을 앞두고 “많은 감정이 든다”고 설레는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골프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LPGA 투어 시즌을 미국 현지에서 준비한 임진희는 “지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기대보다 덜 나간 드라이브 비거리와 짧은 거리의 퍼트 실수가 더러 있어서 아쉬웠다”면서 “거리를 늘리고 집중력이 더 발휘되어야 할 짧은 거리 퍼트를 보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낯선 문화 적응과 영어 구사 등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적응할 계획”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연합뉴스



‘제주 사위’ 김선빈 제주에 꿈나무 육성 기부금

‘제주 사위’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이 제주시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김선빈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찾아 제주남초 야구부에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응원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선빈은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야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 좋지 못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제주도 야구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며 멋진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제주가 처가인 김선빈은 매년 겨울 이곳을 찾아 후배들과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김선빈은 이번 겨울에는 박찬호, 최원준, 박정우와 함께 제주에서 담금질을 했다.

한편 2019년 위기가정아동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던 김선빈은 모교인 화순중에 야구용품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